

유사석유, SK주유소 최다 적발

석유관리원, 293개로 1위 불명예 ... 현대·GS·S-Oil 뒤이어

최근 3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 가운데 SK주유소가 29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.

또 주유소들이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건수도 2010년 들어 두드러지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석유관리원이 4월23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(한나라당) 의원에게 제출한 상표표시별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제품 취급 주유소 적발현황에 따르면,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986개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됐다.

SK주유소가 29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오일뱅크(196개), GS칼텍스(190개), S-Oil(149개) 등 순이었다. 특정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비상표 주유소도 158개였다.

그러나 검사실적 대비 적발실적 기준으로는 비상표 주유소 적발률이 2.71%로 가장 높았고, 현대오일뱅크(1.16%), S-Oil(1.07%), SK(0.95%), GS칼텍스(0.79%) 등이 뒤를 이었다.

김태환 의원은 특히 2010년 들어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적발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.

1/4분기에 적발된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는 총 173개로 2009년 전체 적발수(358개)의 48.2%에 달했다.

김태환 의원은 “유사석유제품 주유소의 추방을 위해선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”며 “적발된 주유소를 정유기업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, 정유기업이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자체 정화노력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23>